

2016. 02. 15. ~ 02. 21. 주간

72  
VOL

#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최근 배추 산지동향 및 전망

##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쌀라면냉동밥쌀음료 등 쌀가공식품, 싱가포르 수출 유망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국내 최초로 육성한 토종 약초 '우강' 우슬 수입대체 가능

## 청년창업, 취업 성공사례

· 늘 행복한 마음으로 유자농사 전문농업인을 꿈꾸다

## 정책동향

· 축산업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로 FTA 활로

##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2~3mm)보다 적겠음

### ❁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8

- ▶ 최근 배추 산지동향 및 전망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9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1

- ▶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 ▶ 나주 농업인 올해도 월급 받는다
- ▶ 화순군, 『제9기 화순군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 ▶ 영암군, 노후된 농업수리시설 긴급 정비
- ▶ 무안군, 양파전용 복합비료 전국 최초로 금년부터 지원 시작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7

- ▶ 쌀라면 · 냉동밥 · 쌀음료 등 쌀 가공식품, 싱가포르 수출 유망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19

- ▶ 국내 최초로 육성한 토종 약초 '우강' 우슬 수입대체 가능
- ▶ 도농기원,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 본격 나서
- ▶ 중간 크기 국산 배 품종으로 심으라고 전해라~
- ▶ 아스파라거스 겨울철 무가온재배 생산기술 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거점지원센터 문열어
- ▶ 겨울나기 사료작물 이렇게 관리하세요!
- ▶ 마늘 · 대파 냉동 편의 제품화로 소비촉진!
- ▶ 고구마 육묘, 병 없는 씨고구마 선택이 중요해요!

❁ **청년창업, 취업 성공사례** ..... 31

- ▶ 늘 행복한 마음으로 유자농사 전문농업인을 꿈꾸다
- ▶ 귀농으로 소비자의 마음과 건강이 깃든 농업기업 창업

❁ **정책 동향** ..... 35

- ▶ 축산업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로 FTA 활로
- ▶ 취 · 창업농 확대 6차산업 활성화 등 농지제도 개선
- ▶ 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으로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 인도네시아, 온라인 신선식품 판매시장 성장

▶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치즈시장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2. 15.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다음주 미국 대통령의 날 휴일을 앞두고  
숏커버링세와 기술적 매입세로 반등이 기대되었으나, USDA의  
미국산 밀 수출·수요 부진과 기록적인 전세계 밀 재고량  
전망에 약보합 마감함.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전일 보합  
마감하며 반등으로의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다시 한번 하락하며  
3주 내내 최저 가격을 기록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춘절이 끝난 중국의 수요세 회복과  
미국 연휴를 앞두고 기대보다 높은 수출 증가세에 상승이  
기대되었으나, 전 세계적 풍작 전망이 상승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며 약보합 마감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농촌에 젊음 불어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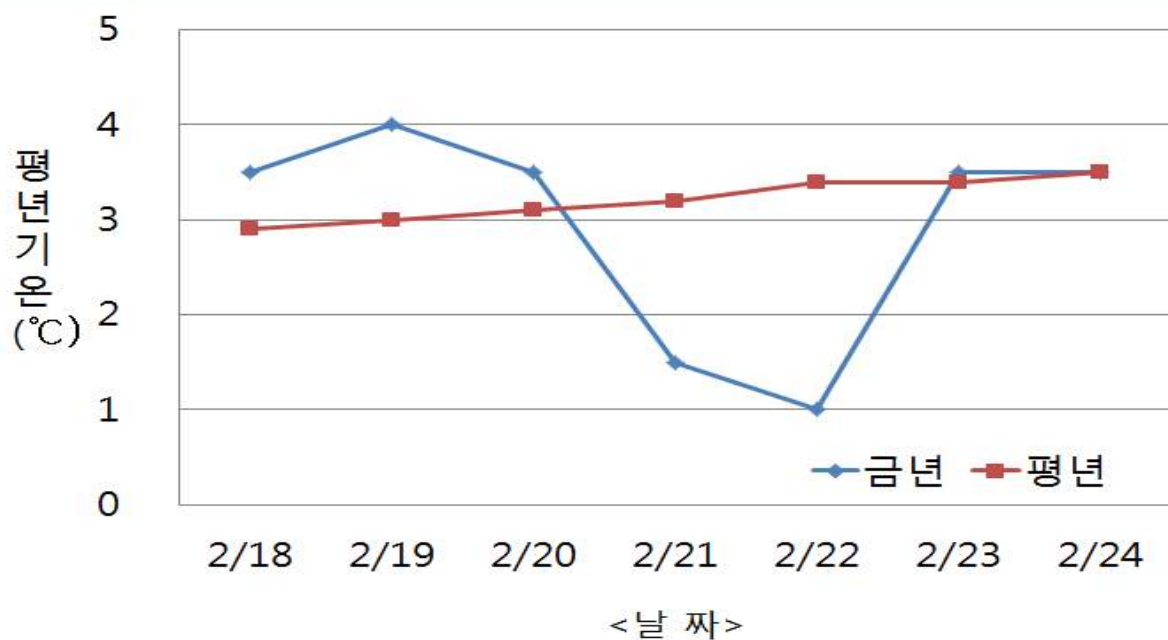
▶ 영농현장 문제점,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1	3.3	-0.2	7.1	8.6	-1.5	-1.0	-1.1	0.1	2.2
2. 18.(목)	3.5	2.9	0.6	8.0	8.4	-0.4	-1.0	-1.3	0.3	1.6
2. 19.(금)	4.0	3.0	1.0	9.0	8.3	0.7	-1.0	-1.3	0.3	1.6
2. 20.(토)	3.5	3.1	0.4	8.0	8.6	-0.6	-1.0	-1.4	0.4	2.0
2. 21.(일)	1.5	3.2	-1.7	4.0	8.7	-4.7	-1.0	-1.2	0.2	2.3
2. 22.(월)	1.0	3.4	-2.4	4.0	8.7	-4.7	-2.0	-1.2	-0.8	2.2
2. 23.(화)	3.5	3.4	0.1	8.0	8.7	-0.7	-1.0	-1.0	0.0	3.0
2. 24.(수)	3.5	3.5	0.0	8.0	8.8	-0.8	-1.0	-0.9	-0.1	2.7
2. 25.(목)	4.0	3.6	0.4	8.0	8.8	-0.8	0.0	-0.7	0.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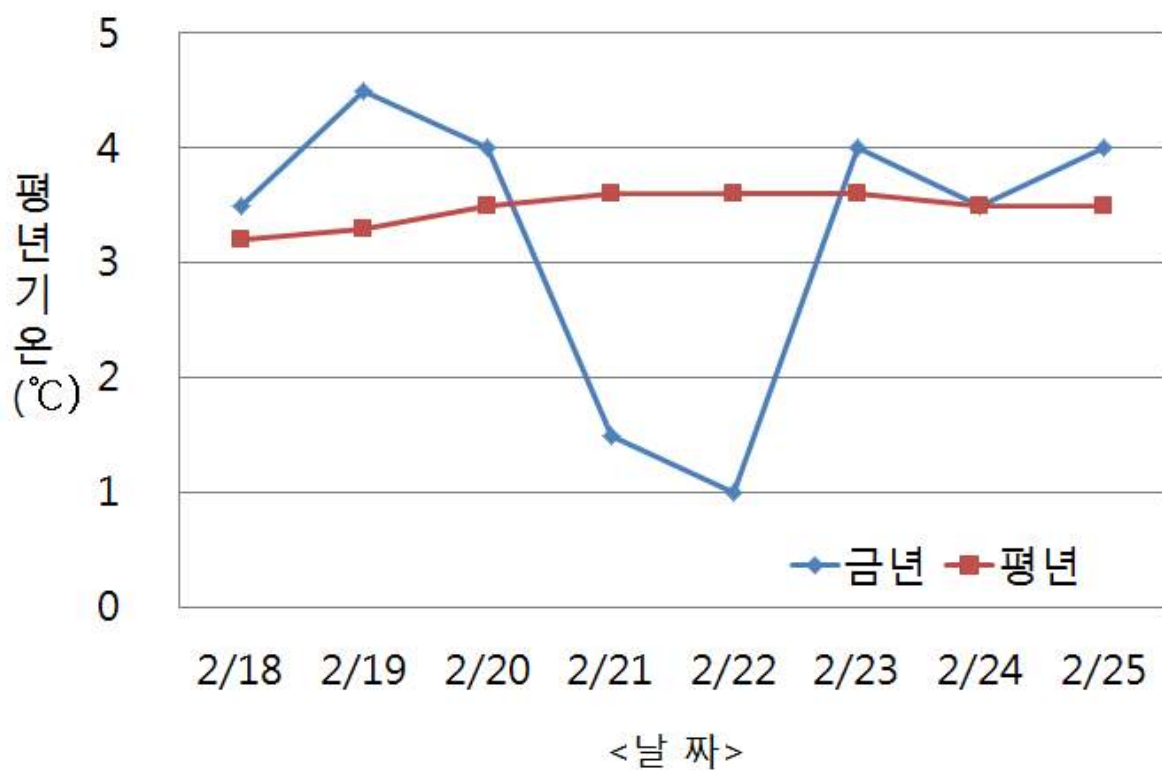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3	3.5	-0.2	7.1	8.4	-1.3	-0.6	-0.2	-0.5	2.2
2. 18.(목)	3.5	3.2	0.3	8.0	8.2	-0.2	-1.0	-0.3	-0.7	2.0
2. 19.(금)	4.5	3.3	1.2	9.0	8.3	0.7	0.0	-0.2	0.2	1.8
2. 20.(토)	4.0	3.5	0.5	8.0	8.5	-0.5	0.0	-0.2	0.2	1.9
2. 21.(일)	1.5	3.6	-2.1	4.0	8.6	-4.6	-1.0	-0.1	-0.9	2.3
2. 22.(월)	1.0	3.6	-2.6	4.0	8.5	-4.5	-2.0	-0.2	-1.8	2.1
2. 23.(화)	4.0	3.6	0.4	8.0	8.5	-0.5	0.0	-0.1	0.1	2.5
2. 24.(수)	3.5	3.5	0.0	8.0	8.4	-0.4	-1.0	-0.1	-0.9	2.4
2. 25.(목)	4.0	3.5	0.5	8.0	8.3	-0.3	0.0	-0.1	0.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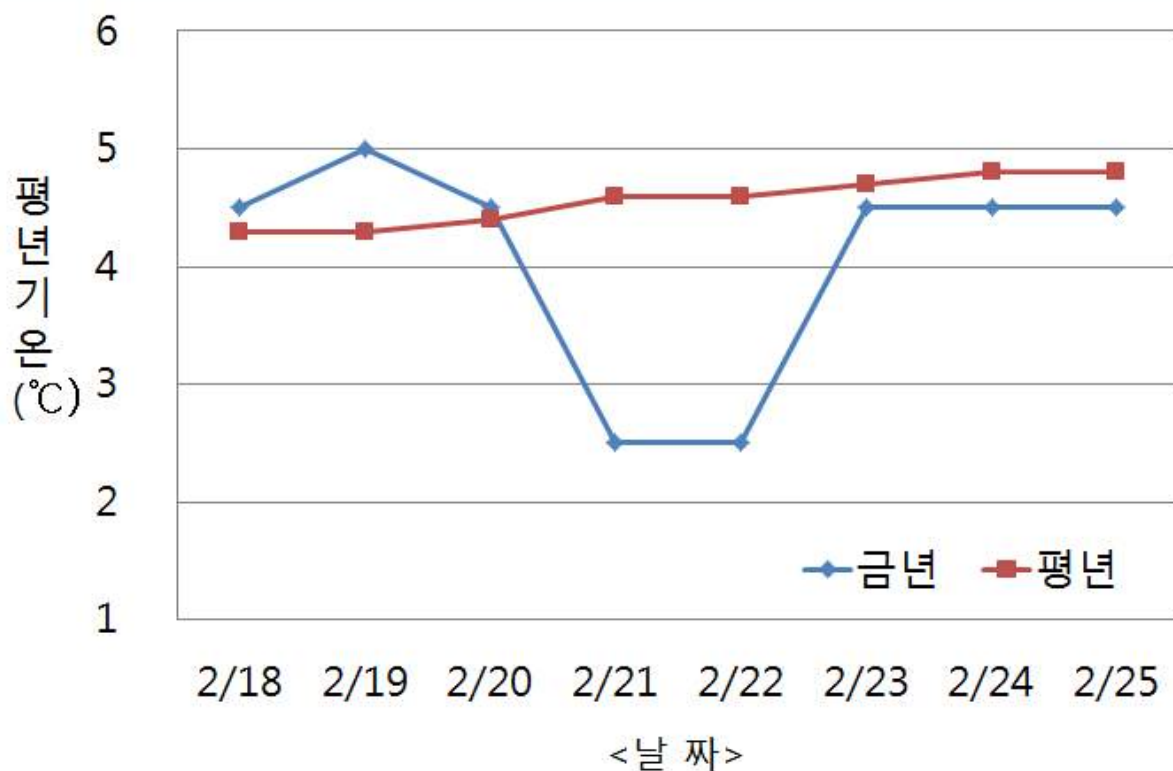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1	4.6	-0.5	7.4	8.7	-1.3	0.8	1.3	-0.5	2.2
2. 18.(목)	4.5	4.3	0.2	8.0	8.5	-0.5	1.0	0.9	0.1	1.8
2. 19.(금)	5.0	4.3	0.7	9.0	8.5	0.5	1.0	0.9	0.1	1.8
2. 20.(토)	4.5	4.4	0.1	8.0	8.7	-0.7	1.0	1.0	0.0	2.3
2. 21.(일)	2.5	4.6	-2.1	5.0	8.8	-3.8	0.0	1.2	-1.2	2.4
2. 22.(월)	2.5	4.6	-2.1	5.0	8.7	-3.7	0.0	1.3	-1.3	2.1
2. 23.(화)	4.5	4.7	-0.2	8.0	8.7	-0.7	1.0	1.4	-0.4	2.5
2. 24.(수)	4.5	4.8	-0.3	8.0	8.7	-0.7	1.0	1.6	-0.6	2.4
2. 25.(목)	4.5	4.8	-0.3	8.0	8.6	-0.6	1.0	1.7	-0.7	1.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최근 배추 산지동향 및 전망

- 1월 하순 배추 평균가격은 월동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
  - 금년 1월 하순 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3,101원)과 평년(5,299원) 동기보다 높은 6,810원/10kg
- 월동배추 산지 출하는 작년보다 이르나, 작황은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작년보다 부진
  - 2월 상순 현재, 월동배추는 60~70% 내외 출하되었으며 작년보다 10일 내외 빠른 것으로 조사
  - 월동배추 작황은 1월 하순 폭설 및 한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부진
- 월동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6% 감소 전망
  - 월동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6% 감소한 32만 톤 전망

<월동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 /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5년산		3,579	8,921	319,277
2014년산		3,589	9,705	358,017
평 년		3,799	8,964	340,578
증감률	작년 대비	-3.0	-8.1	-10.8
	평년 대비	-5.8	-0.5	-6.3

주 :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0~2014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 전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2. 1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15)	2주일전 (02/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1,400	42,333	↓ 12.6	↓ 14.5
	콩(백태)	35kg	149,000	149,000	149,000	140,000	182,533	↑ 6.4	↓ 18.4
	고구마(밤)	10kg	27,200	28,400	25,000	23,400	26,960	↑ 16.2	↑ 0.9
	감자(수미)	20kg	31,000	31,200	28,280	29,500	30,447	↑ 5.1	↑ 1.8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760	710	494	440	705	↑ 72.7	↑ 7.8
	양배추	10kg	6,700	7,900	4,680	5,850	7,923	↑ 14.5	↓ 15.4
	오이(다다기계통)	10kg	32,667	47,333	34,667	41,111	40,253	↓ 20.5	↓ 18.8
	애호박	8kg	28,400	40,000	29,960	36,950	30,083	↓ 23.1	↓ 5.6
	토마토	10kg	31,800	32,600	28,440	28,400	34,560	↑ 12.0	↓ 8.0
	당근	20kg	24,800	25,400	24,440	19,200	23,720	↑ 29.2	↑ 4.6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0,000	783,200	820,000	870,667	↓ 4.9	↓ 10.4
	풋고추	10kg	89,000	76,000	44,480	114,050	85,837	↓ 22.0	↑ 3.7
	마늘(깐마늘)	20kg	160,000	158,000	150,200	99,200	111,667	↑ 61.3	↑ 43.3
	양파	20kg	32,800	33,400	33,000	10,800	19,000	↑ 203.7	↑ 72.6
	대파	1kg	3,180	3,400	1,988	1,490	1,837	↑ 113.4	↑ 73.1
	파프리카	5kg	31,200	53,400	50,840	32,850	34,980	↓ 5.0	↓ 10.8
	멜론	8kg	26,600	26,800	29,320	33,400	45,135	↓ 20.4	↓ 41.1
	방울토마토	5kg	23,800	24,000	18,840	16,950	22,113	↑ 40.4	↑ 7.6
	수박	1개	18,600	22,200	21,120	17,600	17,837	↑ 5.7	↑ 4.3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6,600	37,800	36,200	41,767	53,187	↓ 12.4	↓ 31.2
	배(신고)	15kg	44,000	47,800	43,480	36,150	46,847	↑ 21.7	↓ 6.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15)	2주일전 (02/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8,000	564,667	↑ 0.2	↓ 6.3
	느타리버섯	2kg	12,500	15,000	10,760	17,750	11,303	↓ 29.6	↑ 10.6
	새송이버섯	2kg	9,400	10,200	7,800	11,100	9,607	↓ 15.3	↓ 2.2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271	8,099	7,891	6,650	6,135	↑ 24.4	↑ 34.8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97	1,881	1,835	1,867	1,773	↑ 1.6	↑ 7.0
	닭고기	1kg	5,061	5,178	5,051	4,960	5,817	↑ 2.0	↓ 13.0
	계란(특란)	30개	5,513	5,406	5,575	5,957	5,697	↓ 7.5	↓ 3.2
	우유	1리터	2,549	2,548	2,548	2,548	2,360	- 0.0	↑ 8.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 올해 가입 품목 50개로 확대...벼 무사고 환급제 첫 도입 -

- 전라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국비 350억원, 도비 7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확보해 농가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지원제도다.
-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농가에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 가입 대상 품목은 지난해 46개 품목이었으나 올해 양배추·밀·오미자·시설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50개 품목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벼를 시작으로 시범 적용한 후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까지는 모내기 이후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뭄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미이앙 보장' 상품도 출시됐다.



- 이와 함께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 상품을 지난해 12개 품목에서 올해는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 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사과·배·감 시설작물은 오는 23일부터, 벼·밤·고추는 4월, 고구마·옥수수·봄감자는 5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가입 시기, 절차 등은 시·군, 지역농협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늘고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전남은 지리적 여건상 자연재해가 많으므로 농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벼·배·감 등 5만 5천 496ha, 3만 699농가였다. 이 가운데 태풍·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천 404농가에 7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출처 : 전라남도

## ■ 나주 농업인 올해도 월급 받는다

- 나주시, 관내 전체 13개 농협, 월급제 지원 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나주시와 지역 13개 농협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나주지역 농업인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급을 받게 됐다.
- 나주시와 지역 13개 농협이 5일 오전 시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게 된다.



-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한도내에서 매월 20일에 농협에서 먼저 지급받게 되는데, 월급의 상·하한은 출하할 벼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 참여농협은 작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마한·동강·다시농협 등 4개 농협에서 올해는 농협 수매약정 모든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주시 전체 13개 농협으로 확대해서 오는 2월말까지 적극 홍보, 한 농가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농협과 함께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정작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면서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공약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인규 시장은 또 “농업인 월급제 이외에도 민선6기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로컬푸드 체계구축,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공동 육묘장 확대 등 선거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살고 싶은 농촌과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출처 : 나주시



## ■ 화순군, 『제9기 화순군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 친환경농업과·농업전문(한우)과 2개 과정 80명, 2월 25일까지 신청접수 -

- 화순군은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제9기 화순군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 이번에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과와 농업전문(한우)과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25회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 희망자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특히 이번 농업인대학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열망에 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전문(한우)과」 과정을 개설하였고, 농업초년생 또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의 전반적 내용과 농사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재배기술을 다루는 「친환경농업과」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실천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다.
- 한편, 농업인대학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으로 2008년 ‘한약초 대학’을 시작으로 2015년 친환경농업과, 농업전문(토마토)과 2개 과정을 추진하여 총 16과정, 563여명 전문 농업인을 배출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품목별 생산비절감과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번 교육과정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새로운 기술들을 농업인에게 빠르게 적용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 ■ 영암군, 노후된 농업수리시설 긴급 정비

- 풍년농사를 위한 기반시설 110여건 발주 준비 착착!! -

- 영암군이 2016년도 농업장군의 면모에 걸맞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시시설 등 관개급수 시설의 긴급점검에 나선다.
- 영암군은 전남도 내 두번째, 전국 열한 번째로 넓은 비옥한 농지와 다양한 과수와 채소가 생산되는 농업장군으로 전국 12대 브랜드 달마지쌀 골드·황토고구마·영암배 등 고품질의 농특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농한기철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 영암군은 이번 긴급점검을 통해 겨울철 농한기에 노후한 저수지와 용·배수로, 저류지, 관정, 농로, 준설 등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긴급 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리시설 관련 23억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농업기반시설 개선과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정비,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 110여건의 사업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시설확충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사업은 영농기철 이전까지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는 등 영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은 1차 산업의 비중이 38%에 이르는 농업군으로 민선 6기 영암군의 신성장 동력인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영암군은 꾸준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 관개 급수율을 86%까지 높였으며, 깨끗하고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과 기계화 영농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출처 : 영암군



## ■ 무안군, 양파전용 복합비료 전국 최초로 금년부터 지원 시작

- 품질향상, 노동력·생산비 절감...1석 3조 효과 기대 -

-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3년부터 3년간 남해화학(주)과 기술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양파전용 복합비료’를 군비 2억 2천만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금년부터 지원한다.
- 이를 위해 무안군은 지난해 9월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간의 무안 양파 전용 복합비료 개발 실증시험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시험 결과에 따르면, 무안 양파전용 복합비료는 작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의 유효과 칼슘성분을 혼합한 비료로써 플라보노이드 및 퀘르세틴 함량이 관행에 비해 각각 21~87%, 14~21% 높게 측정 되었으며, 토양 내 미생물활성화는 물론 당도 증가, 양파의 독특한 향 증가, 저장성 및 지역증진에도 큰 효과를 나타냈다.
- 무안군은 비료가격으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농자재 가격 감소에 발맞춰 12,800원/포(20kg)을 책정하였고, 시중 복합비료 가격(11,150원/포)의 차액분 1,650원을 양파재배 전체면적에 지원할 계획이다.
- 양파전용복합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초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4월말까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7~8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 양파전용 복합비료 보급으로 연작장해 감소와 저장성 향상 등의 효과와 비료살포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및 양파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무안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쌀라면·냉동밥·쌀음료 등 쌀 가공식품, 싱가포르 수출 유망

-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 건강 이미지 및 한류 마케팅 활용 수출확대 가능성 높아 -

- 쌀가공식품 소비가 활발한 싱가포르 시장에서 쌀면과 냉동밥·쌀음료 등 우리 쌀가공식품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한 이미지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한류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자카르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싱가포르 쌀 가공식품 현지 수요 조사’에 따르면 쌀국수와 즉석 냉동밥·쌀음료와 같은 우리 쌀 가공식품이 현지에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한류 영향으로 현지에서 우리 농식품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싱가포르에서 우리 쌀 가공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쌀 가공식품 중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 중 하나가 쌀면(쌀국수·쌀라면)인데, 이는 우리 업체들이 해물맛·멸치맛·얼큰한 맛 등 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맛과 세련된 포장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한인마트 등 교민위주로 유통되고 있어 현지 소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aT 싱가포르지사는 한국식 국수 고유의 풍미를 잘 살렸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기름에 튀기지 않아 다이어트에 좋다는 점 등을 부각해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비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즉석 냉동 볶음밥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바쁜 현대인들이 많은 싱가포르 지역 특성상,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 냉동 볶음밥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안전성이 높은 우리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aT 싱가포르 지사는 한류와 한식에 관심 있는 현지 소비자를 겨냥해 잡채·김치 등을 첨가한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볶음밥을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을 펼친다면, 올해 우리 즉석 냉동 볶음밥 수출은 전년 대비 15% (2015년 수출실적: 15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쌀음료의 경우, 현재 싱가포르 유기농식품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홍보활동이 부족해 활발한 소비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현지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음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유리병을 선호하는 현지인 취향에 맞춰 포장디자인으로 개선해 프리미엄 음료로 홍보해야 한다고 aT 싱가포르지사는 주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국내 최초로 육성한 토종 약초 ‘우강’ 우슬 수입대체 가능

- 종자, 뿌리 생산성 높고 엑디스테로이드 등 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산 약초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생약재 안정생산을 위해 약효성분이 높은 토종 약초 우슬 ‘우강’ 품종을 국내 최초로 육성하였다고 밝혔다.
- 우슬은 동의보감 및 본초강목 등 고서에서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국내 최고급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육성된 품종이 없어 농가에서는 주로 산이나 들에서 도입한 재래종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새로 육성한 우강 우슬은 종실의 크기가 균일하고 무거워 종자생산량이 재래종보다 35%가 많아 종자보급에도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뿌리 생산량도 20%가 높아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뿌리에는 신경통의 약효성분인 엑디스테로이드 함량이 14% 정도 많아 생약재로 이용하기에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 현재 우슬의 국내 소비량은 약 300톤 정도이나 생산량은 재배면적 25ha에서 약 50톤 정도로 공급량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주산지는 장흥·화순·강진 등으로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연구사는 이번에 육성한 “우강 우슬은 생육 특성이 우수하고 종자 수확량이 많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뿌리 생산성과 약효성분 함량이 높아 우슬 재배농가의 소득향상 및 생약재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밝히며 “앞으로 우강 종자를 조기에 농가 분양하여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도농기원,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 본격 나서

- 패션프루트·천혜향·애플망고 등 5시·군 4작목 12.2ha 조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부지방에서 적응 가능한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애플망고 >



<커피>

- 2016년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시범사업 추진과 국·도비 공모사업인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820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남부지방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하여 농가에서 직접 아열대 작물을 실증 재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광양·곡성·화순·영암·신안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한다.
- 담양에서는 패션프루트 1.5ha, 고흥은 애플망고 0.4ha, 보성·장흥은 천혜향 5.3ha, 영암 무화과 5ha 등 총 12.2ha의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가 신규로 조성된다.
- 특히, 곡성에서는 2008년부터 금호타이어 공장폐열을 이용하여 겨울철 난방을 실시하여 파파야를 연간 50톤을 생산하고 계약업체에 납품 및 일부 직거래를 하고 있다.



- 또한 고흥에서는 애플망고와 더불어 커피를 아열대 과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선정해 현재 14농가 1.7ha를 재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ha 규모로 확대해 커피 체험관광산업을 통한 농업 6차 산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전남지역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866농가 377.2ha로 고흥·완도 등 남부 지역에서 석류·비파·부지화 순으로 많고 시설하우스 내에서 가온이 필요한 애플망고·파파야·커피·천혜향 등은 소수 면적이 재배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박혜량 과장은 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따뜻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고, 최근 먹거리 글로벌화로 아열대 과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작목별 영농기술교육과 농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중간 크기 국산 배 품종으로 심으라고 전해라~

- 껍질째 먹는 ‘조이스킨’, 검은별무늬병에 강한 ‘그린시스’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배 묘목(품종) 갱신기를 앞두고 국산 품종 ‘조이스킨’과 ‘그린시스’를 추천했다.



<조이스킨>



<그린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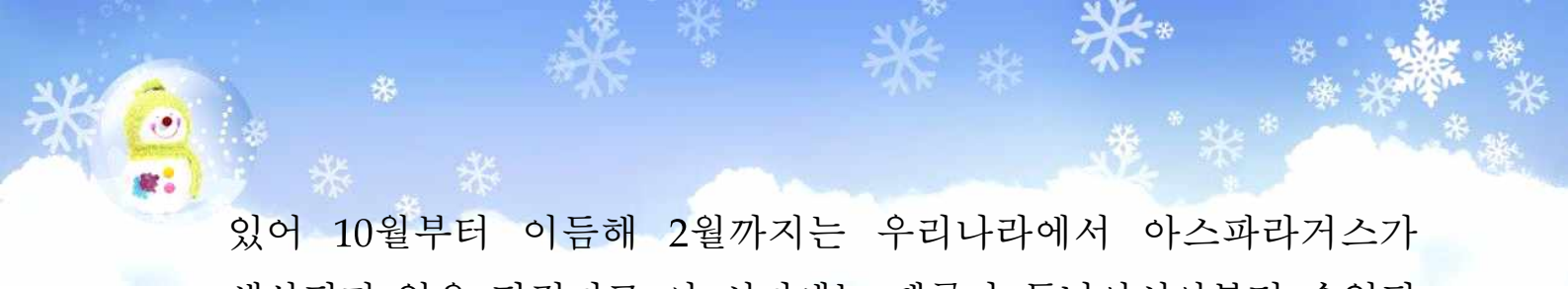
- 국내 배 시장은 전체 배 과원의 83%가 일본 품종인 ‘신고’를 생산하고 있어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소비자들의 맛과 크기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 특히, ‘신고’는 검은별무늬병에 약하고 열매가 큰 편(무게 750g)이라 혼자 먹기엔 다소 큰 편이다.
- 농촌진흥청은 전국에서 5년 이상 지역적응시험을 거친 후 육성한 중간 크기의 국산 배 품종 ‘조이스킨’·‘그린시스’를 통상 실시해 올해부터 보급하고 있다.
- 2011년 육성된 ‘조이스킨’은 과일 무게가 330g으로 성인의 주먹보다 크기가 작으며, 껍질이 얇고 질기지 않기 때문에 껍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
- 익는 시기는 9월 상순(전남 나주 기준)이며, 평균 당도가 15.2°Bx로 높고 과즙이 풍부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시원하고 진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 혼자 먹기에도 알맞은 크기로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고급 디저트로도 손색이 없다.
- 2012년 육성한 ‘그린시스’는 국내 최초의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품종으로 배 생산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해를 해결할 수 있는 품종이다. 과일 무게는 460g으로 중과에 속한다.
- 익는 시기는 9월 하순이며 풍부한 과즙에 녹아있는 특유의 풍미가 12.3°Bx의 높은 당도와 조화를 이룬다.

- 맑은 녹색 껍질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배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 국산 배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배연구소 (061-330-1543)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원경호 농업연구사는 “지금까지 우리 배의 이미지가 제수용으로 굳어지면서 갈색 껍질의 큰 열매만 찾다보니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며, “농가에서는 올해부터 보급하는 중간 크기의 국산 배 품종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종들을 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아스파라거스 겨울철 무가온재배 생산기술 개발

- 지하부를 4℃에 20~30일간 저온 휴면타파 처리로 겨울철 조기 생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아스파라거스 식물체 지하부의 생리적 특성인 휴면(호흡·흡수 등 생리적 기능 멈춤)을 인위적으로 타파하여 재 생장기로 전환시켜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수확 할 수 있는 단경기 생산 휴면타파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새봄에 싹이 터 올라오는 새순을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4~5월이 제철로 “4월의 아스파라거스는 아무에게도 안 주고, 5월의 것은 주인에게, 6월의 것은 당나귀에게 준다”는 서양속담이 있듯이 아스파라거스는 그 생산시기에 따라 상품적 가치가 다르며 우리나라 주 생산 시기는 3월 상순부터 9월 하순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 이는 아스파라거스 식물 생리상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휴면성이



있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아스파라거스가 생산되지 않은 단경기로 이 시기에는 페루나 동남아시아부터 수입된 아스파라거스가 국내 소비량의 30%를 점유하고 있어 수입 물량을 대체 할 수 있는 단경기 생산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단경기 생산 휴면타파 기술은 20kg용 과일 수확상자에 원예용 인공상토를 넣고 3개월 정도 육묘한 묘를 심어 전용양액을 사용한다.
- 관비재배로 7개월 동안 뿌리덩어리(근주)를 양성해서, 토양이나 콘테이너 상자에 1~2년 동안 양성한 아스파라거스 식물체의 뿌리덩어리(근주)를 4℃에 20~30일 정도 저장고에서 저온 처리를 하면 휴면에 들어갔던 뿌리덩어리가 다시 재 생장을 시작하여 새순이 나오게 하는 기술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생산이 가능해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특히 아스파라거스는 우리지역에서 화순과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9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및 관리노력이 비교적 적게 들어 농촌의 고령자와 도시에서 귀농한 은퇴자들에게 알맞은 실버 맞춤형 틈새 소득작목으로 전망이 매우 밝아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작목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 한편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원예연구팀장은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성 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스파라거스의 소비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남의 따뜻한 기후적 특성을 살려 조기재배와 함께 단경기 생산기술을 농가에 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하여 새로운 틈새소득 작목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거점지원센터 문열어

-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으로 노동력 20% 절감, 생산성 30% 향상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스마트팜 확산과 데이터에 의한 정밀농업으로 시설원에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술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규모화 된 시설원에 농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구축된 ICT 거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가 시설환경 모니터링과 자료 원격분석에 의한 정보제공 및 산·학·연 공동으로 현장지원을 겸하여 시설원에 농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농업환경은 FTA 확산에 따라 국외 여러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에 진입 한지 오래되었다. 우리농업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규모화 및 첨단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는 0.8ha미만의 규모가 작은 농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 농가의 재배환경 개선과 더불어 규모화, 첨단화를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스마트팜은 노동력이 20% 절감되고 생산성이 30% 향상되는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으로써 규모화, 품질 규격화 및 첨단농업으로 농업 여건을 극복하는 글로벌 농업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 확산과 더불어 시설원에 단지의 ICT 융복합 확산에 신규 진입농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ICT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농가의 시설환경을 분석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입체적인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희곤 연구사는 “농가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융복합기술 TF팀을 만들어 연구와 지도, 시·군센터, 학계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별농가의 환경데이터 분석·양액분석, 농가별 및 작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시설원에 농가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겨울나기 사료작물 이렇게 관리하세요!

- 눌러주기(답압), 웃거름 주기로 질 좋은 풀사료를 많이 생산합시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논 뒷그루로 재배하는 사료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 작물 생육시기에 맞춰 눌러주기와 웃거름 주기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지난해, 잦은 비와 비교적 높은 온도로 인한 웃자람과 1월 하순 불어 닥친 갑작스런 한파로 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언 땅이 녹으면서 사료작물 밑동이 솟구쳐 오르는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뿌리가 뜨는 것을 막고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겨울나기 후에는 반드시 눌러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전남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땅 표면에 넓게 퍼져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겨우내 성장이 정체된 사료작물이 왕성히 자라는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는 웃거름을 줘야한다. 거름은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의 경우 ha당 요소비료 150kg, 청보리와 호밀은 요소비료 120kg 정도가 적당하다.
- 이외에도 이른 봄에는 잦은 비로 습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특히 청보리와 호밀은 습해에 약하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상국 소장은 “가축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은 풀사료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겨울철 사료작물 관리를 위해서는 겨울을 난 뒤 눌러주기와 웃거름 주기로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마늘·대파 냉동 편의 제품화로 소비촉진 !

- 맛있게 요리할 때, 이제 ! 마늘·대파 간편하게 ...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 주산작목으로 재배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미향신 채소인 마늘과 대파의 냉동 편의제품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식품업계는 콜드체인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간편한 신선 채소류의 냉동제품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마늘·대파 냉동 편의제품을 개발하였는데, 1년간 품질을 유지하는 저장성과 위생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세척 전처리기술, 소비자 편의를 위한 포장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 냉동 다진 마늘은 1회분씩 여러 번 조리하게 날개로 PP 용기에 포장 후 급속 동결하여 제품화하였고, 냉동 대파는 껍질을 벗기고 공기방울로 3차례 세척 후 행굼, 탈수를 거쳐 절단해 200~500g 단위로 포장한 후 급속 동결하여 상품화하였다.
- 마늘과 대파는 한번 구입시 비교적 많은 양을 구입하지만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 사용하는 양념 식재료로써, 사용할 때마다 껍질을 제거하고 세척·절단이나 다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바쁜 현대 생활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어서 마늘과 대파 소비의 제한 요인이었다.
- 이러한 냉동 편의제품 개발은 산지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척 및 절단 전처리하여 소포장 제품으로 냉동·저장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이들 개발제품을 광주광역시와 경기지역 3개소에서 시범판매를 한 결과, 냉동 대파는 66%, 냉동 다진 마늘은 71%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지가공 생산자업체가 성공적으로 마늘·대파 냉동 편의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품연구팀 오봉윤 연구사는 냉동 마늘·대파 편의제품은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을 주고 연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되어 소비가 촉진되므로 수급안정은 물론 재배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향후 산지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산업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고구마 육묘, 병 없는 씨고구마 선택이 중요해요!

- 농촌진흥청, 올바른 고구마 육묘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고구마 조기 재배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육묘 방법을 소개했다.

### <고구마 묘 키우기 과정>



- 고구마 묘를 본답에 꺾꽂이(삽식)해 빨리 뿌리를 내리게 하고 초기에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싹이 굵고 마디 간격이 짧으며,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은 묘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먼저 검은무늬병이나 무름병에 감염되지 않고, 어느 피해를 입지 않은 건전한 씨고구마를 선별해야 한다.
- 검은무늬병은 검은색 둥근 병반으로, 병반부위를 잘라보면 덩이뿌리 내부까지 검게 변한 채 썩어있다. 또한, 무름병은 고구마가 물렁하게 썩고 끈적끈적해지며, 알코올 발효 냄새를 풍긴다.





- 씨고구마의 적당한 크기는 150~200g으로, 육묘상 면적은 본밭 10a에 껌꽃이(삽식)를 기준으로 10m<sup>2</sup>가 필요하며, 종자량은 70~100kg을 준비한다.
- 씨고구마를 묻을 때 고구마 사이 간격은 5cm, 줄과 줄 사이 간격은 10cm 정도 띄워서 묻는 것이 좋다. 또한, 머리쪽(고구마 줄기가 달려있던 부분)에서 싹이 나므로 한 방향을 향하도록 하면 싹이 고르게 자라 순자르기가 편리하다.
- 고구마 싹이 잘 트기 위해서는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토양 온도를 30~33℃로 유지하고, 싹 튼 후에는 23~2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또, 모판흙(상토)은 마르지 않게 관리하되 지나치게 습할 경우 고구마가 썩거나 흰비단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병에 걸린 고구마는 주변 흙까지 파서 버리고 다른 고구마를 다시 심어야 한다.
- 본답 껌꽃이(삽식) 혹은 묘 증식을 위해 싹을 자를 때는 묘의 밑동부분 2~3마디를 남기고 잘라야 새싹이 돋아나기 쉽고 검은무늬병 전염을 막을 수 있다.
- 묘를 자른 후 요소 1%액을 1m<sup>2</sup> 당 1~2L를 주면 싹이 나는데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이경보 소장은 “고구마 재배의 성패는 고구마 싹기르기 부터 시작되므로, 씨고구마 선별과 육묘상 관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7. 청년창업, 취업 성공사례

### ■ 늘 행복한 마음으로 유자농사 전문농업인을 꿈꾸다

- 완도 '봄빛농장' 대표 박연정, 연락처 : 061-555-3428 / 010-3017-5287 -

- 2003년 고금도 초·중·고등학교 선배이자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 평범한 가정주부로 서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남편이 경기를 타는 인테리어업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흙 밭에 텃밭만으로도 행복했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두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옮겨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6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귀농 후 면사무소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지역 곳곳을 수시로 탐색하여 창업 아이템과 기반이 될 농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귀농 작목으로 한우를 선택했으나 좀 더 안정된 소득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완도 특화작목인 유자 과수원 2,300평을 인수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 들었습니다.
- 귀농 전부터 생협 회원으로 활동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기에 친환경 농사법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견학을 통해 쌀뜨물 발효액, 은행잎을 이용한 해충 기피제·산야초를 이용한 액비 등의 친환경 농자재자가 제조기술을 터득하였고, 유자 과수원 뿐 만 아니라 농장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물을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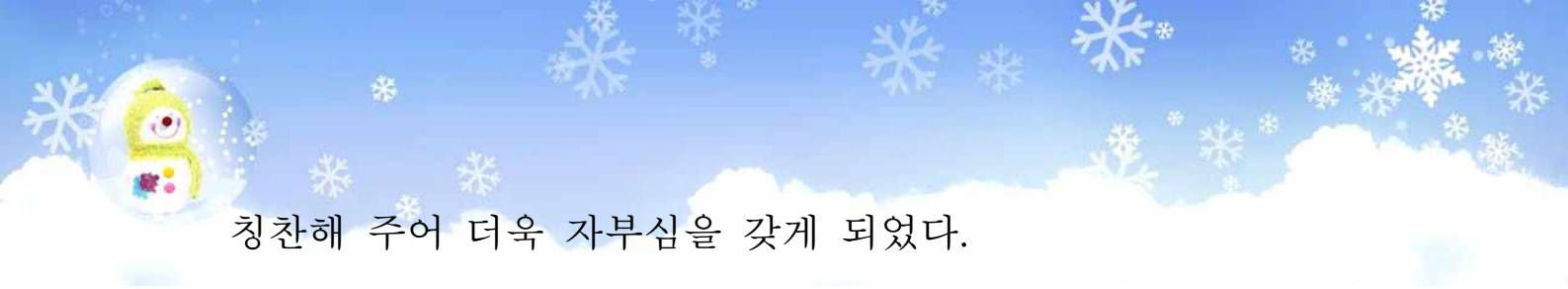
- 2014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사업을 통해 프리미엄급 유자 브랜드 ‘유자도’와 가공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자도’는 해초류가 많아 음이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진 완도 고금도를 유자 생산에 유리한 산지로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 확장과 수출을 고려하여 한글·한문·영문을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절임 방법 개선을 통해 유자 특유의 신맛을 줄이고, 자극적인 당도는 최소화하되 방부제 등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자말랭이와 유자차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고비용, 고령화, 소농위주 등의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이를 극복하고 돈 버는 농업을 실천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 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규모 가공업체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직접 무농약 재배하여 인증을 받은 유자만을 100% 수가공하여 프리미엄급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유자도 좋은 열매를 맺고, 유자차를 사는 구매자도 행복이 가득할거라 믿습니다. 유자를 사랑하는 전문 농업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자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유자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온 국민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유자를 생산하고,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전라남도

## ■ 귀농으로 소비자의 마음과 건강이 깃든 농업기업 창업

- 곡성 '블로치울금농장' 대표 노병철, 연락처 : 061-363-0543 / 010-9944-2403 -

- 2007년 전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를 졸업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했으나, 지난 2009년도,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곡성으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 울금을 재배하면서 울금의 소비층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금의 대중화가 어려운 이유가 특유의 쓴맛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쓴맛을 줄이고 기능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2013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흑마늘의 원리에 착안하여 울금을 발효 숙성시킨 흑울금 발효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백화점·건강식품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개척해 흑울금 유통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개발한 흑울금 발효 제품은 울금의 쓴맛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울금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내가 운영하는 '블로치울금농장' 홈페이지에는 울금의 품질과 효능을 칭찬하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른 제품보다 빛깔도 곱고 효능도 훨씬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소규모로 울금을 재배하는 다른 농가 대표도 대규모 농사를 지으면서도 친환경으로 재배한다고



칭찬해 주어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 인터넷 검색으로 주문한 고객이 '받기 전까진 불안했는데 너무 잘 선택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을 때도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보람과 사명의를 느낍니다. 정성으로 농사를 짓다보면 언젠가는 소비자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 모든 농산물이 그러하듯 울금도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기초 작업으로 작목반을 통한 물량확대, 가공시설 확충, 기술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울금을 많이 먹는 인도와 일본의 치매·중풍 발병률이 미국 등 선진국의 8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산한 울금을 먹고 소비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직한 기업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 앞으로 '울금꾸러미' 밥상을 활성화하고 5년 후에는 울금을 기초로 한 종합식품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곡성을 '대한민국의 오키나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 장수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꿈입니다.

\* 출처 : 전라남도



## 8. 정책 동향

### ◆ 축산업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로 FTA 활로

- 전남도, 올해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67개 사업에 2천 271억원 투입 -

- 전라남도는 영연방 3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축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축사 시설 현대화 등 67개 사업에 총 2천 2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전라남도는 2016년 축산업 발전 목표를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물 복지형 녹색 축산기반 확충,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경영 안정 및 미래 성장 산업 육성으로 정했다. 전업규모 3천 200호를 육성하고, 한우 1등급 출현율을 65.2%에서 65.4%로 올리고, 연간 어미돼지 1마리당 새끼돼지 출하 수를 18.1마리에서 19마리로 늘리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2천 530농가로 확대하고, 조사료 전문단지는 1만 500ha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기반 확대 등에 372억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및 인증비용, HACCP 컨설팅 등 동물 복지형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해 축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 또 지난해 물꼬를 튼 전남 한우의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해 한우 암소 개량 등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중국의 삼계탕 수출을 위한 수출 기반 육성에도 5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특히 조사료 전문단지 21개소 조성 사업 등 조사료생산 사업에 857억원을 지원해 소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액비 저장조 395개소 신규 설치, 악취 저감 시범사업, 가축 분뇨 처리 시설사업에 250억원을 지원한다.
- 녹색축산육성기금 150억 원을 용자 규모로 확정해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추진하고 영세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해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 이와 함께 곤충·말·흑염소·꿀벌 사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조성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에 대해선 농가와 계열사의 자율방역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같은 농장에서 AI 반복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고, 구제역의 지속적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며 가축 이동 경로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FTA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생산농가의 자립기반 확대, 유통망의 다변화,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 생산비 절감 대책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 취·창업농 확대 6차산업 활성화 등 농지제도 개선

-대학생 농지 취득 가능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개정법령 시행-

- 전라남도는 취업·창업농 확대,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농지 취득 가능 및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지제도를 개선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 개정법령은 취업·창업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1천㎡ 미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 재학생에게는 효율적 농업 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 또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 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여도 공장 전체 총 부지 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 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했으나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합리적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전 납부제 시행 절차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 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부담금 부과 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신청일’로 변경된다.
-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 납부 대상은 개인의 경우 전당 2천만원 이상, 법인단체 등 기타는 4천만원이다.
-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는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국토관리 질서 정립 등을 위한 것이다.
- 소영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및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으로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의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위해성 1급) 및 사육·유통 제한(위해성 2급) 명령으로 농업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은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 가능한 종을 대상으로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2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 다만, 최근 외래생물 사육에 대한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향후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어왔다.
-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 폐기·유통제한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 \* 손실보상 절차 :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을 하면,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받은 지자체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손실보상금을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결정·통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손실보상금 산정 : ① (곤충 폐기시) 폐기된 곤충의 가격 +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 폐기비용 + 영업손실 ② (곤충 사육·유통 제한시)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

□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용되고, 향후 일반 식품원료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최종적 식품의 안전관리와는 별도로 생산단계의 안전사육을 위해서 시행령에 사육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 \* 식약처는 갈색거저리 유충 및 쌍별 귀뚜라미의 식품공전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치고(1.13~14), 행정예고(1.27~2.16) 진행

○ 구체적 사육기준은 전문가 검토, 농업인 및 소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곤충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곤충의 식품이용 등 곤충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국무회의(2.11.)에서 의결하였다.
-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시행되었다.(2.5. 시행)

○ 이로써 '15.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③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습도·이산화탄소·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④ 그 밖의 개정 사항으로는,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팽연왕겨·탈봉기·소문망 4종 추가)
- 비상장 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 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  
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 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9. 해외 농업정보

### ◆ 인도네시아, 온라인 신선식품 판매시장 성장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신선식품의 온라인쇼핑 시장이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나타내며 2020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카르타에 설립된 식품유통전문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해피프레시(HappyFresh)는 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중상류층 소비자들이 온라인 식품 쇼핑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이 업체는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 대도시의 교통정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구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함.
- 해피프레시는 싱가포르 Vertex Venture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SinarMass Digital Venture가 지난해 자본금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 등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랜치마켓·롯데마트와 협력하여 영업하고 있음.
- 해피프레시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우유와 유가공품 및 달걀임. 또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외국인들은 토마토·스파게티·닭가슴살 등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함.
- 최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신선식품 판매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치즈시장

- 세계 치즈시장의 규모는 매년 4.4%씩 성장하여 2019년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됨.
- 세계적인 민간 시장조사전문기구, 트랜스퍼런시 마켓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계 치즈시장 교역 규모는 795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요식업계의 수요증대와 고급 치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 증대로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1,051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 같은 치즈시장 성장의 주요 지역은 중국·한국과 같은 극동지역과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극동지역의 치즈 시장 성장은 오는 2019년까지 매년 7.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전 세계 치즈시장의 38.8%는 유럽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국가들이 32.7%를 분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가별로는 지난해 51만 7,000톤을 수출한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조사되었음.
- 치즈시장 확대의 장애요인은 유통기한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리코타 치즈와 같은 비숙성 연성 치즈는 2~4주, 팔미산 치즈와 같은 경성 치즈는 7~9개월, 가공 치즈는 1년 정도 유통이 가능함.
- 여전히 자연 치즈 수요가 높으나, 최근에는 가공 치즈 수요도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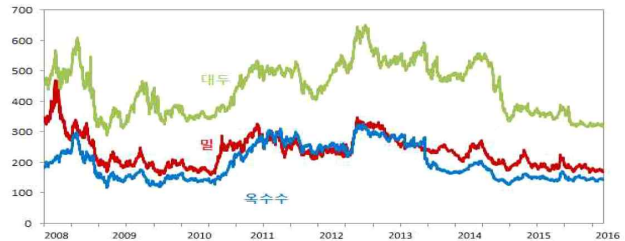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2. 15.(시카고 선물거래소)

## 풍작 전망 속 미국 주요 곡물 가격 약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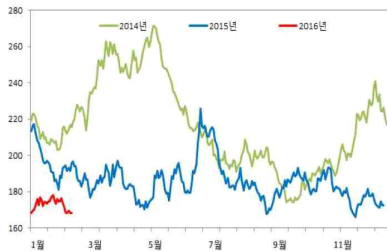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2.12)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	2015 평균
밀	168.06	▼0.2%	174	186
옥수수	141.18	▼0.4%	142	148
대두	320.62	▼0.1%	323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3월물,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차주 미국 대통령의 날 휴일을 앞두고 숯커버링세와 기술적 매입세로 반등이 기대되었으나, USDA의 미국산 밀 수출 수요 부진과 기록적인 전세계 밀 재고량 전망에 약보합 마감함.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와의 수출 체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집트 국영 바이어 GASC는 루마니아산 밀 6만톤 구입을 체결했다고 전함.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전일 보합 마감하며 반등으로의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다시 한 번 하락하며 3주래 최저 가격을 기록함. 옥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에탄올 수요 부진과 지지부진한 수출 수요 우려가 가격하락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USDA는 80만~110만 톤을 예상했던 수출량이 40만 톤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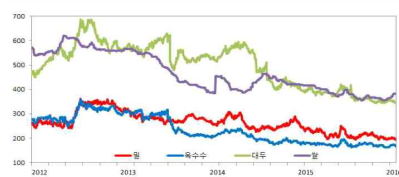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춘절이 끝난 중국의 수요세 회복과 미국 연휴를 앞두고 기대보다 높은 수출 증가세에 상승이 기대되었으나, 전 세계적 풍작 전망이 상승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며 약보합 마감함. USDA는 지난 목요일 미국산 대두 수출이 666,800톤을 기록하며 전망치인 30만~60만톤을 상회했다고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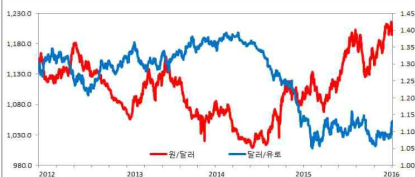
### 관련동향

- 연휴가 끝난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며 대두 수출 가격 강보합세
- 국제유가는 감산 공조 기대감 증가, 주요국 증시 상승, 미국 원유 시추기 수 감소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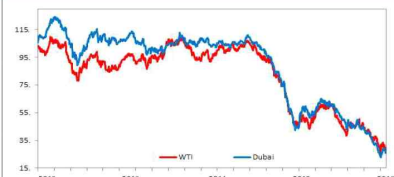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4 ▼1.0%	환율	원/달러	1,197.0 ▲0.2%
	옥수수	165 ▼1.8%		달러/유로	1.1317 ▲0.3%
	대두	345 ▲0.3%	국제유가 (US\$/B)	WTI	29.44 ▲12.3%
	쌀	382 -		Dubai	26.86 ▲3.0%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2.11(수출가격), '16.2.12(환율), '16.2.12(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농촌에 젊음 불어넣는다

- 전남도, 전국 최대…농대·농고생 창업인턴제 전국 최초 지원 -

○ 전라남도는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 촉진 및 창업 초기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수 청년인력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과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시·군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농대·농고생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 정착 동기 부여를 제공해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사업이다.

- 월 120만원의 연수수당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추진한다.

- 39세 이하 농대·농고 휴학생 또는 5년 이내의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며, 거주지 시·군에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타 도의 경우 국비 80만원을 지원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방비를 더 들여 120만원을 지원한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영농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 초기 소득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창업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제공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출처 : 전라남도

### ◆ 영농현장 문제점,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농촌진흥청, 2016 식량작물 종합 상담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2016 식량작물 종합 상담’을 실시한다.
  - 올해 1월 경기 여주 지역을 시작으로 10월까지 13개 작목에 대해 총 56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 \* 13개 작목 : 벼·특수미·보리·밀·감자·고구마·두류·옥수수·참깨·들깨·땅콩·잡곡류·조사료
- 식량작물 종합 상담은 공통적인 관심 사항에 대한 공동 상담, 관심 분야별 전문 상담을 실시하는 개별 상담, 방문 요청 농가 대상 현장 진단·처방이 이뤄지는 현장 상담으로 나뉘 진행한다.
  - 공동 상담은 쌀 관세화, 식량작물 수출 확대와 품목별 공통 현장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이다.
  - 분야별 맞춤형 상담은 품종, 재배 관리, 병해충, 기계화, 수확 후 관리, 경영·마케팅, 가공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 상담사가 농업인과 1:1 상담을 진행한다.





- 현장 상담은 분야별 전문가 3~5명이 농가를 방문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현장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시료를 채취해 담당 부서에 정밀 진단을 요청해 해결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영농 시기별로 식량작물 품종, 재배 관리, 병해충 방제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식량작물 종합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 2015년에는 벼·두류·잡곡 등 8개 작목에 대해 40회에 걸쳐 2,181명을 상담했다.
- 그 결과, 농업인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 만족도 87.2%).
- 지난해 참깨 역병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고창의 한 농가는 “종합 상담에 참여하면서 역병의 병원균 생리·생태 및 증상, 방제 대책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병 예방과 적정 방제로 약제 구입비는 아끼고 수확량은 늘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상담을 원하는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상담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황규석 과장은 “2016년에는 대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식량작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마케팅 분야를 강화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7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